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8월 8일(금)

(음력 윤6월 15일)

Пятница

8 августа 2025 г.

№ 31 (1214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9일은 체육인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신임 소장으로 국장현 부임



주블라디보스톡대
한민국총영사관 유즈
노사할린스크 출장소
박상태 소장의 임기가
끝나 2025년 8월 11일
부로 새로운 소장으로
국장현(1968년생) 주우

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참서관 겸
총영사가 부임한다.

신임 소장은 2000년 2월 한국 외교부에
입부하고,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영사,
주네팔대사관 2등서기관, 주스리랑가대사
관 참서관 겸 영사, 주타지키스탄대사관 대
사 대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장현 소장은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 일본 대사와 비공식적 회담 가져

지난 8월 2일(토) 사할린주 주지사 알
레리 리마렌코는 국제 포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섬들: 기후적 측면'의 일환으로 사
할린주를 방문한 무토 아키라 주러시아 일
본 특명전권대사를 단장으로 한 일본 대표
단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수소 에너지 개발, 석유가
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실행,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한 탄소 발자국 감축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역 간 교류 복원 전망
에 대한 논의 중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말로만 아니
라 행동으로 철회할 때에만 진정한 양측 간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할린주, 새 역사 교과서 5만8천권 구입

사할린주 교육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5~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역사 교
과서 5만8천여 권을 구입해 전 지역 학교에
100% 보급했다.

이번 교과서는 러시아사와 세계사를 통
합한 개방적, 현대적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적 맥락 속에서 러시
아 역사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 학생들
은 세계사 전체를 통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주지사, 중증질환 아동의 부모와 접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가 사할
린주에서 다양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자
녀들의 부모들과 정기적인 접견을 하고 있
는 가운데 중증질환의 아동 돌봄 지원 및
의약품을 보급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각장애 자녀의 수술 지원 문제를 호소
한 어머니에게 즉각 조치하도록 약속했고,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하얼빈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존경하는 건설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여러분!

8월 10일 건설업 종사자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미래의 우리 지역
이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력을 다해 건설한 주택 건
설량은 50만m²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되었고, 최근 몇 년간 사할린과 쿠
릴열도에서 2만 가구가 이상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의 건설 전문
가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세계적 수
준의 수상스포츠센터와 마카로브에 병
상장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지역에 최대 규모의 학
교와 육상 종목 훈련장의 완공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비롯
해 7개의 병원과 주내 다양한 지역들
에서 일련의 중요한 시설들의 벽이 올라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 건설업 종사자
및 전문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건강
과 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 여러분이 기획하시는 모든 일
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종사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

세웨로쿠릴스크,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연료 확보 시스템 복구 작업중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캄차트
카 지진대에서 8.7의 지진이 기
록되었고, 4번의 쓰나미가 덮
쳤으며, 가장 높은 파고는 최대
7m였고, 물보라는 해안선에서
250m떨어진 곳까지 퍼져 세웨
로쿠릴스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8월 5일에 열린 주 정부 회
의에서 지진 및 세웨로쿠릴스
크의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긴
급상황에 따른 지역 복구대책
계획이 세워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태 발생을 주민들에게 신속
하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준 비
상사태 구조대에 감사의 전하
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
치 덕에 인명피해를 막은 것이
라며, 현재 중요한 작업은 사회
적 시설과 공공 제반시설의 원
활한 운영 확보와 주민을 지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복구 조
치에 따른 작업을 지연시켜서
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8월 4일(월)에는 세웨로 쿠
릴스크 중심 구역에 유치원 운
영이 재개되었고, 지난주에는
전기 공급, 온수 공급, 해상화
물, 여객 운송이 복구되었다.
세웨로 쿠릴스크 지역은 여

전히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
다. 위원회가 피해 규모를 조
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대상
인 주택 구조물과 주민의 개별
적 재산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
고 있고, 생필품을 잃은 주민들
에게는 지방정부가 보상을 하
고 있다.

사회적 시설 중 중앙구역
병원 건물 왼편 절반의 외벽이
손상돼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내부 벽과, 건물 기초가 손상되
었다. 현재 이동식 천막 병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추위가 오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
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에는 너무 부족해 조립식 구조
물의 설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보일러실 조사도 이뤄져 무
엇보다 장비는 보존된 상태이
며, 건물의 손상된 외벽에 복
구가 필요한 상태이나 연료공
급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입
었다.

사할린주 에너지부의 드미
트리 쿠와린 장관은 "부두에 위
치한 연료수급 장치가 침수되
어 떠나려갔고, 연료를 공급하
는 탱크가 전복되어 복구할 수
없다. 또한 자동화 펌프장도 전
체 침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파라무쉬르섬에는 2.5개월 -4
개월간의 연료가 비축되어 있
으므로 현재 임시방편으로 연
료공급시스템 복구에 따른 작
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됐다.
주지사는 세웨로 쿠릴스크 지
역에 10월 중순까지 중단없는
연료 공급을 확립하도록 요청
하고, 학교에 전력을 공급할 새
로운 변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한 가운데 새로이 제반
시설 설계와 건설에 착수했다.

쓰나미 이후 변전소 건물이
심히 손상되어 전문가들은 장
비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전력공
급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수산업 기업들 지
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안가에 위치했던 수산업
기업인 '알라이다' 공장에서는
보관 중인 연어 120톤과 가리
비 1톤이 쓰나미에 휩쓸려갔
고, 쓰나미가 이 공장의 생산제
반시설을 모두 훼손시켜 현재
복구가 어려운 상태다. '그라니
스', '아지무트', 'СК БСФ(수
산물 도매상)' 등 수산업 공장
들이 피해를 입었고, 근로자들
은 재해 발생 전에 대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40명에 달하
는 이들 공장의 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잃었다.

사할린 떠나는 박상태 소장. "통합의 사할린을 꿈꾸며"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박상태 소장의 임기가 끝나 오는 8월 12일 사할린을 떠나 본국으로 귀임한다.

"3년 반 임기 중 가장 뿌듯했던 것은 사할린 1세대 동포 어르신 약 100명을 명절마다 직접 찾아뵙거나 카드·선물을 전달한 일입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귀 기울이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라고 박 소장은 전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포포나이스크 등 사할린 전역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우글레고르스크는 끝내 방문이 어려웠습니다."라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국 유명 공연단을 초청하여 우리 동포가 하나되어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상태 소장은 "사할린 동포사회의 미래는 청년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며 "1·2세대가 함께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 동포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한인단체들, 8월 중 다채로운 행사 개최

올해 8월, 사할린의 한인단체들이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8월 16일(토) 정오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 '코스모스' 운동장에서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의 공연을 비롯해 공예 활동교실, 한식 요리교실(비빔밥, 떡, 국수 등), 태권도 및 씨름 축제 등이 마련된다. 특히 한식 시식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8월 17일(일) 정오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네에 마을 문화회관 행사장에서 광복절 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공연과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 요리체험, 전통놀이, 한지 접기, 체스 및 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박람회도 열린다.

사할린연합회(회장 고영순)는 8월 2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랴' 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제4회 '라면'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시식회와 다양한 예술단의 공연, 동양무술 시범, 한국 간식 판매 등이 진행된다. 특히 라면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대중적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배순신 기자)

<마지막 공격> 기획 전시,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에서 열려

지난 6일(수)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공격>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당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사할린 '승리' 추념 종합박물관과 1941년 - 1945년 대조국전쟁 중앙박물관이 적극 협력하여 전시회가 조성됐다.

또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과 마카로브 박물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격작전 박물관 등 사할린주의 주요 박물관들이 협력했으며, 사할린 박물관 관계자들의 작업을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원했다.

행사에서 승리 박물관 관계자를 비롯한 인사들 및 참전용사의 연설은 승리의 업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었다.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 전시부 이안 콜레가예브 부관장 대행은 "소련 군인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사할린 주 정부 제1지부장 아르세니 드라홀로브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땅인 사할린을 소개했다. 전시회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이 공개되었는데, 그중에 최전선의 편지, 사진, 군복, 무기, 개인적 소지품, 태평양 함대와 아무르 소함대 모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45년 사할린 작전 당시 사용된 지도와 전투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이 모 저 모

극동지역에 대한 우수 영상제작자에게, 극동연방관구 지역 여행이용권 수여

극동지역에 대한 영상 공모전에서 10명의 우승자들에게 극동연방관구 지역들에서 무료 여행이용권 상품을 수여한다. '나의 극동' 전 러시아 영상공모전에는 학생과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극동에 대한 영상 및 서사를 제작하게 되면서 각 참가자들은 탐구를 위해 자신의 지역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소셜네트워크 '#브콘탁테' : '#모이 달니(나의 극동)', '#브 카드레 달니(극동의 한 장면)', '#취비 나 달네(극동에서 살리라)'에 게시하고, 게시 후 공식 공모전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도 영상을 게시해야 한다.

참가등록은 9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나의 극동> 공모전 사이트에는 이미 공모가 시작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짧은 영상과 안내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한편 극동의 지역들은 공모전 참가자들을 위한 활동교실을 마련하여 강사들이 각 지역의 독특함에 대해 설명하고, 공모전의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제출된 영상들은 공모전 소셜네트워크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주요 공모 절차는 이렇다. 첫째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참가등록. 둘째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공모전 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자신의 영상작품 링크 게시. 셋째 2025년 11월 30일 공모전 결과 발표. 넷째 '러시아' 국립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다.

<나의 극동> 영상-서사 공모전은 <광대한 극동 도전> 대중적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기획은 러시아 극동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조성됐으며, 이 기획이 주도하는 바는 지역의 독특한 자연과 풍성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있다.

<2025년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의 날들> 기획은 극동연방관구의 러시아 연방 전권대표 기구,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 '사회적 주도 개발기금' 비영리 단체의 참여로 추진되었다.

Автор лучшего видеоролика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лучит путевку на путешествие в регионы ДФО

Десять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чьи видео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кажутся лучшими, получат главные призы — бесплатные поездки в регион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Мой Дальний». Он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видео-эссе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аждому

участнику достанется свой регион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товые работы нужно опубликовать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ВКонтакте с хэштегами конкурса: #МойДальний, #ВКадреДальний, #ЖивиНаДальнем. После этого ссылку на видео необходимо загрузить в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стартует 1 сентября, но уже сейчас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Мой Дальний» доступны короткие видеороли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правки о регионах. Такж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готовили специа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пикеры расскажу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и объяснят правила конкурса в понятной форме. Материалы будут публиковать на сайте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конкурса.

-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конкурса:
 -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с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до 15 ноября 2025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 Загрузка ссылки на видеоролик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с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до 21 ноября 2025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 Объявл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Конкурса 30 ноября 2025 года.
 -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йдет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Россия».

Отметим, конкурс видео-эссе «Мой Дальний» — это продолжение популярного проекта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ест».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молодежи к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России. Она знакомит с уникальной природой,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и историей региона. Проект также помогает раскры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Проект «Дн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 2025» инициирован при участии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 также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Фонд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사할린 북위 50도선상의 '한다사' 경찰초소 습격 사건 제6회 재현

1945년 9월 3일에 발생한 군사적 및 역사적 사건을 사할린주에서 다시 재현하는 가운데

'러시아 수색 활동' 사할린 지부가 스미르니흐 지역 한다사 경찰초소 습격 사건을 재구성한 재현을 관람하도록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이 사건은 남 사할린 작전의 핵심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여 6번째 진행되는 사건 재현은 대규모 볼거리를 제공할 거라 장담하고 있다.

'러시아 수색 활동' 전 러시아 사회활동위원회 사할린 지부장인 아르쭰만두라는 "우리는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 자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군 역사 클럽을 비롯해 애국 연맹의 대표들이 이에 참가하도록 요청했다. 사건 재현에 참여하기 위해 8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러시아 9개지역에서 60명의 재연 배우들을 선정했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

년을 기념하는 해에 사건 재현의 참가자들에 대한 지리적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은 대단히 획기적이다. 이 방면에서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전개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건 재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군과 소련 적위대의 군복과 무기들을 이용한다. '러시아 수색활동' 자원봉사자들은 1945년 영웅적 사건을 되살리며,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규모 활동을 수행했다.

<한다사 경찰초소 습격> 사건의 군 역사적 재현은 8월 9일에 조성되며, 관람은 자유이고, 재현 공연 후 전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 장비와 무기 유형도 알아볼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한 재정 및 홍보 지원에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이 적극 나섰고, 스미르니흐 지역 행정부도 사건 재현의 조성을 도왔다.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Сахалина в шестой раз воссоздадут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овь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обытий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увидеть реконструкцию штурма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в Смирновском районе.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ключевы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перации. Шестая по счету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к 8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бещает быть масштабной и зрелищной.

«Мы пригласили к участ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х клубов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ведущих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Для участия в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елающие подали более 80 заявок, из которых мы отобрали порядка 60 реконструкторов из 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чень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нам удалось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участников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ланируем и дальше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РО ООД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В реконструкции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форма и оружи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лонтеры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проделали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оживить геро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1945 года и представить их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состоится 9 августа. Начало в 12: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ожно будет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боя и увидеть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и снаряжения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8면에 계속)

"더운 날씨엔 바닷가 최고!"

올여름 사할린은 평년보다 훨씬 더운 날씨였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6월 말부터 몇 주째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한낮 기온은 25~32°C까지 올랐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바다와 호수로 물러들었고, 특히 주말에는 오토츠크해 연안, 투나이차 호수, 아니아 해변 등이 인파로 붐볐다.

이들은 "더운 날씨엔 바닷가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진: 아니아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이예식 기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섬들: 기후 측면>국제 포럼에서 사할린의 수출 잠재력 과시

8월 1일 - 2일까지 열린 <지속 가능한(생활 안정적인) 개발의 섬들: 기후적 측면> 국제 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16개 국가에서 1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

포럼의 일환으로 사할린주는 지역 생산 수출제품을 소개하고, 해외에서 수요가 높은 식재료를 이용한 미식축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러시아 수출센터가 시행하는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생산제품의 해외진출 및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연방 프로그램 <러시아 생산> 브랜드로 사할린의 수출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하나로 모았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섬들: 기후적 측면>국제포럼에서 우리는 <러시아 생산>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제품 브랜드들을 소개했다. 가장 높은 국제표준을 충족시키는 사할린의 제품들을 협력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는 러시아 수출센터의 지원으로 우리 생산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해외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포럼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기후 중심 경제 분야에서 사할린 지역의 광범위한 가능성을 발표하는 자리

가 되었다."고 전했다. 국제 포럼에 참가한 주요 기업들로는 먼저 '시네고르스키에 미네랄니예 워디'이다. 사할린주 35년의 역사를 빛내는 대규모 요양시설로서 그 특징 중 하나는 이즈멘치보에 호수에서 채취한 황화물-실트 진흙을 사용하는데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포함돼 있고, 치료의 효과를 높여주는 미생물과 천연 유기물질인 부식산을 함유하고 있다.

'사코+' 기업은 사할린 제과 생산의 으뜸 기업으로 젤리, 과자, 설탕 파스틸라, 천연 열매로 만든 제과 등 이 기업 생산 라인에서 200종 이상의 제과가 생산되고 있다.

'세웨르나야 즈웨즈다' 맥주와 생수 코르사코브 공장'은 사할린주에서 무알콜 음료 생산과 판매량에 있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디위야 - 사할린 팜'은 '라미나 포르테' 브랜드 아래 해초를 원료로 하여 혁신적인 식물성 약물과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개인 기업가인 시린스키 미하일 페트로비치는 건강 및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친환경제품으로서 침엽수류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수용액을 생산하고 있다.

'카르디날'기업은 바다표범의 지방으로 만

든 생물학적 활성첨가제를 생산해 '이무노로 스트'라는 상품명으로 7년간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개인 기업이 말쑤와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는 사할린주의 정체성을 담은 자체 의류 브랜드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엘케이(LK) 사흐인웨스트'회사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잔여 목재가공제품 연료 펠릿을 생산하는 임업회사다.

수취코브 스타니슬라브 니콜라예비치는 개인사업가로 사할린 북부에서 재배되는 '이완 차이'를 특수 발효기술을 이용해 생산한다.

'바나 37'는 생태적으로 독특하고 깨끗한 쿠나쉬르섬에서 자라는 쿠릴 대나무로 목욕 마사지 빗자루를 만드는 회사다.

앞서 2025-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러시아 수출센터의 회장 웨로니카 니키쉬나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개발에 대한 협력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할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개발과 사할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대반열반경 (大般涅槃經) / '붓다'의 유훈 (遺訓) 중에서**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여든이 되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고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다

"저는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글을 쓰다 보면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이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닌 터라, 이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코메디를 쓸 때만큼은 아주 예민해지지요. 웃겨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미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가 봐요. 골계미도 그렇고, 무엇보다 언어의 조탁성이 동반될 수 있도록, 단어를 아주 쪼개고 보고, 늘이기도 하다, 의미를 뒤로 숨겨버린 뒤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기는 식이거든요. 말이 무대를 휘어잡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박스러운 언어들 임에도 격이 있는 무대를 꿈꾸다 보니, 신새벽까지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모습입니다. 야식 먹다 아내에게 혼나기 일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코메디란 자칫 감정을 놓쳐버리면 코메디는 말 그대로 코메디가 되거든요. 이러니 이런 글을 쓸 때의 제 모습이란 '괴로운' 풍경으로 비취질 수 밖에. 언젠가부터 희곡 집필 의뢰라면 일단 고개를 절레절레 떨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신작 한 편 올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았거든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배우들의 노련함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연출가의 섬세한 극적 장치들 덕분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지난했던 퇴고의 순간들이 어느새 반짝이는 대화들로 거듭나고 있었거든요. 자기 작품을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뻔뻔한 작가도 드물 텐데, 저는 말이지요. 전 제 작품이 참 좋거든요. 함께한 연출과 배우들, 우리 팀도 참 좋구요. 그래서 이제부터 게을리 하지 않을 거임. 좋은 건 좋다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인스타 개정도 하나 파야지! 광고 땀시 인스타는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던데! 그래도 파! 아님 말어? 아, 오늘 또 '아난다여' 한 번 더 읽어 봐야겠네요, ㅋ." (서울에서 허진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광복 80주년 맞아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를 소개한다.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 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강위

관리번호	95265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강위	한자	
이명	강신우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함경남도 흥원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

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였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

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박배근과 제1소대장이었던 강위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년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요소 : 미확인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Жаркий август: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августе 2025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ёт серия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и.

16 августа в 12:00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стадион «Космос») состоится праздник в честь 80-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остей ждёт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ДШИ «Этнос»,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их блюд с дегустацией (пибимбаб, тток, пянсе,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и куксу), фестиваль по корейским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ссырым и тхэквондо), а также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Гла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праздни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7 августа в 12:00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на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расной армией СССР".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БУ Дальнен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ул. 1-я Московская, 4). В программе: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дефиле «Театра моды» в корейском стиле, конкурсы и игры, фотозона «Ханбок-стай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бумаж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дегустация корейских блюд,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шахматы и ссырым). Гостей ожидает большой кулинарный сюрприз.

23 августа в 12:00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РК «Аллея» состоится 4-й фестиваль «Рамен». Участников ждёт дегустация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лапши,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а также конкурсы с призами. Организатор фестиваля –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бщатьс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богат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традициями и кухней.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В Приморье пройдут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с 15 по 17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организует серию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г. Уссурийске,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нет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Korea Fantasy: концерт в честь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15 августа в 19:00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Андеграунд» (г. Владивосток, ул. Гоголя, 39А).

В этот вечер зрителей ждёт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ъединяющая традицион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ую выдающимися артист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а сцене выступят:

Ансамбль игры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барабана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егендарного мастера Ким Док Су —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амульнори в мире,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Намвон,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мелодии и инструменты,

Ансамбль пхансори (уникального жанра корейского пения),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Modern Table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Чже Дока, известного своими авангардными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насыщенными постановками. Зрителей ждёт 20-минутн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сочетающая современное движение и корейские мотивы,

Ансамбль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артис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г. Уссурийска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другие приглашён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Вход на концерт свободный, необходим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UPD: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планированы также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нкурс K-pop Cover Dance Competition, бесплатный пока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Фантом»,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й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им Чухе.



<https://t.me/saramkor>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в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Моему племяннику Чон Сок Хвану, по которому скучаю

Мой дорогой племянник Чон Сок Хван (정석환) (1)!

Слушая трансляцию 14 октября (2), я испытал целую гамму чувств — от радости до печали. Весь дом наполнился слезами и рыданиями. Впервые в жизни я был по-настоящему счастлив и печален.

Мои родители были такими старыми, что я не верил, что они выживут, но я был по-настоящему убит горем, когда услышал новость об их кончине. Но, мой племянник Сок Хван, я так рад слышать, что ты воспитываешь четверых детей, трёх сыновей и одну дочь, и что ты живёшь в мире. Грустно и прискорб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о кончине Су Ёна (수용), первого двоюродного брата отца, но, к счастью, его дети живут хорошо. Однако я расстроен, потому что не получил известий от ваших двух тётюшек. Надеюсь, ты передашь мои приветствия своим тётюшкам, как только получишь это письмо.

Слушая передачу, дядя Судон выразил сво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осподину Пак Но Хаку (박노학) (3) из Токио и Ассоци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г. Тэгу (4), а также выражаю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ещательной радиостанции (5) и людям из все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Надеюсь, что горе и боль последних 27 лет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и что настанет 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между нами, дядей и племянником.

Мой племянник Сок Хван!

У меня есть ещё одна просьба. Мать вашей тётки скончалась на 29 день 5-го месяца эт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6).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Чо Пхаль Сону (조팔성).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вы также сообщите о благополучии семьи по радиопередаче.

Наконец, заверяю тебя, что здесь всё так же спокойно, как и всегда.

И пусть вс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 родине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а благо страны и приближают 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7). Мне хочется ещё многое сказать, но отложу ручку и подожду того дня, когда радиопередача выйдет в эфир. Коне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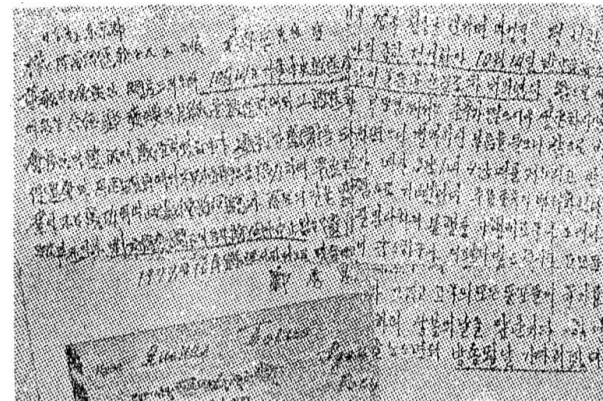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Томари
Чон Су Дон (정수동)
(1972)

Комментарии:

(1) Здесь и далее по вопросу на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их имен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ранскрипция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названий традиционно дается по системе Л.Р. Концевича, в данных публикациях было решено сохранить более привычны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иль написания фамилий и имен в три слог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читатели смогли узна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давать имена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2)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автор письма имеет в виду радиопередачу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которая выходила на KBS с 1972 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легально слушали иностранное радио через радиоприёмники.

(3) Пак Но Хак (1914–1988) — корей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родившийся в уезде Чунчжу провинции Чунчхон-Пукто. В 1943 году был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ен на Сахалин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осле женитьбы на японке и переезда в Японию в 1958 году посвятил всю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х репатриацию на родину. В Японии Пак Но Хак основал организацию «Общество корейцев, задержанных и репатрированных с Карафутто (Сахалина)», которая стала центром движения за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н наладил почтовую связь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Корею, что был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условиях отсутств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ей. Благодаря его посредничеству было передано около 30 000 писем между разлученными семьями. Пак Но Хак составил уникальный «Список Пак Но Хака», в котором зафиксировал данные о более чем 7000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их происхождение,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другую ва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Этот документ стал важны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о статус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1988 году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слуг степени «Донбэк» за выдающийся вклад в защиту пра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4) Ассоци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г. Тэгу —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е удалось. Вероятно имеется ввиду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ла или была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м «Ассоциаци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КНР и СССР».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и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ь в городе Тэгу Ли Ду Хун (이두훈) сыграли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вопросе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нце 1980-х —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Именно встреча известн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учён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Бок Зи Коу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с Ли Ду Хуном в 1988 году привела к учрежде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ервой офици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 Скорее всег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KBS World Radio (Всемирное радио KBS) — корейская радиовещательная станция, основанная в 1953 год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Голос свободной Кореи». С 1955 году начало вещание на японском языке, с 1957 года —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 1961 года —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1961 году переименовано в «Сеульск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адио», в 1994 году — «Всемирное радио Кореи». Основной целью радиостанции провозглашается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путё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новостей 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ограмм точной и своеврем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жизн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ё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х. Всемирное радио позиционирует себя также как важный канал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для 7 млн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6) Лунный календарь — тради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летоисчисления,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вшаяся в Корею, Китае и Япон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веков. В отличие от солнечного календаря, он основан на циклах Луны и составляет основу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и важных дат. Лунный год состоит из 12 месяцев по 29–30 дней каждый,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354 дней. Поскольку это на 11 дней короче солнечного года, для синхронизации с сезонами периодически доб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месяц.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м календаре используется 60-летний цикл, основанный на сочетании десяти «небесных стволов» и двенадцати «земных ветвей» (знаков зодиака). Каждый год, месяц, день и даже час имеют свои обозначения в этой системе. Корейский лунный календарь практически идентичен китайскому.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разднования Соллаль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Чусок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друг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Письмо, судя по всему, было написано в 1972 г., значит 29 день 5-го месяц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тот год выпадал на 9 июля.

(7) Официа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зицией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КНДР и РК явля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к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Корея, которая была колонией Японии с 1910 по 1945 год, получил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 итога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ССР и США согласились, что Корея будет временно разделена по 38-й параллели, однако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державами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ни к чему не привели и в 1948 год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ыли основаны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 разными социальными-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стемами.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здел Кореи закрепился после кровопролитно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одов, хотя ещё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руководства обеих стран официально провозглашали объединение как свою высш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цель. В 2024 году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отменило политику воссоединения.

Юлия Д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ДР критикует учения США, РК и Япон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вергла критике США, РК и Японию за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назвав их «подготовкой к превентивным ударам по республик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США, РК и Японии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кращены», - говорится в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2 августа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Имеются в виду 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в июле вблизи Японии, и недавние учения по воздушной логистике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нанесение превентивных ударов по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е», — говорится в статье. В статье упомянуто также трёхстороннее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К, США и Японией, которое названо «намерением сокруш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ллективной военной силой». Лишь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твет на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было бы «справедливым и честным» решение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стать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народовало МРОТ на 2026 год

5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К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о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МРОТ) на 2026 год. Он составит 10.320 вон (7,4 доллара) в час, что на 290 вон или 2,9% вы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 условии полной занятости, когда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оставляет 40 часов, минимальная 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ит 2.156.880 вон (1.542 доллара). Установленный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все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а 10 июля комиссия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 соста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профсоюзов.

Буддийская община может помочь межкорейскому примирению

4 августа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Чон Дон Ё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ой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Чогёчжон монахом Чину.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ась роль буддийской общины в процесс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имирения. Чон Дон Ё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ение и философия буддизма могут стать духовной основой для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двух Корей. Монах Чину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религиозный подход к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отметив, что он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ее мягкому и естественному сближению. Глава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предлож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аломничества и богослужения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где сохранилось множество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включая известный храм Ючжонса. Он выразил мнение, что в случае затруднений с прямым участ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орден Чогёчжон мог бы сыграть роль посредника в налаживани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границе с КНДР начался демонтаж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4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ачали демонтаж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установленных вдоль границ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ые транслировал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передач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Данный шаг был предпринят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11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трансляцию через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в рамках ослабления напряжё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Это практическая мера может помочь снизить межкорейскую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е влияя на боеготовность арми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РК продано более 3 млн смартфонов Galaxy S25

Суммарные продажи смартфонов серии Galaxy S25, выпущенной в феврале, превысили внутри РК 3 миллиона единиц.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5 августа в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Миллионная отметка продаж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на неделю, а двухмиллионная — на две недели раньше, чем у предыдущей модели. Трёхмиллионный порог преодолен на два месяца раньше. По оценке экспертов Samsung, стабильны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интерес к новой серии обеспечили функции Galaxy AI, включая «генеративное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замедленную съёмку» и «удаление звука».

BIFF-2025 откроется фильмом «Метод исключения»

Фильм «Метод исключения» (No Other Choice), новая работа извест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30-го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BIFF). В оргкомитете фестиваля решили, что именно эту картину захотят увидеть около пяти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идут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Кроме того, выбор пал на фильм, способный вдохнуть живую энергию в современное корейское кино. Герой фильма «Метод исключения» начинает отчаянные поиски новой работы после увольнения с должности, которую он занимал 25 лет, и становится серийным убийцей. 30-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7 по 26 сентября.

РКИ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тарифах, выгодное для Трампа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31 июля заключили срочное торг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формально названное "полным и всеобъемлющим". Оно позволило Сеулу избежать немедлен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торгового конфликта, но оказалось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наглядной иллюстрацией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неравными стали переговоры с СШ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За снижение 25-процентных пошлин до уровня в 15 процентов Сеулу пришлось расплатиться масштаб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уступками по рынкам и отказом от прежних преференций.

О чем соглашение: 15% тарифов для Кореи и сотни миллиардов инвестиций для США

Содержание достигнутого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соглашения охватыва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 от пошлин и торговых условий до 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и вопросов энергетики. Хотя с юрид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осят рамочный характер, уже сейчас они задают параметры буду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соглашения стало снижение взаим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США отказались от ранее объявленного плана ввести 25-процентные тарифы на весь 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согласившись на компромиссную ставку в 15%. Формально это позволило Южной Корее избежать резкого удара по своей экспортной модели. Однако важн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до нынешней сделки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KORUS FTA - ввозились на американский рынок фактически беспошлин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же компромисс в 15% означает не улучшение, а ухудшение условий торговли, особен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режимом.

Особо остро это проявилось в отношении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 2012 года корейские автомобили имели нулевую пошлину при экспорте в США, что обеспечивало им конкурент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понскими и европейски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чьи автомобили облагались тарифами в размере 2,5%. Теперь все три региона уравниваются - пошлина составит 15%.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ыталась добиться снижения хотя бы до 12,5%, но США жестко отстояли единый подход.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это означает фактическое аннулирование то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перед конкурентами из Европы и Японии, которое Сеул выстраивал годами.

Отдельн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тарифы на сталь и алюминий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Здесь США жестко встали на защиту сво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этих сегментах тарифы составят 50 процентов, своего рода исключение из общего 15-процентного уровня.

Вторым важнейшим блоком соглашения стал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омпонент. Южная Корея взяла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ложить 350 млрд. долл. в экономику США. Из этой суммы 150 млрд. долл.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править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сектор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нацеленного на возрожд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ерфе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амих судов, но и об открытии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развит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Оставшиеся 200 млрд. долл. планируется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е сектор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ядерную энергетику, аккумуляторные технологи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и переработку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ресурсов. Однако, как уточняет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виде кредитов и гарантий. При этом именно америк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направления и конкретные объекты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Это фактически означает, что контроль над этими средствами остане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Более того, как публично заявля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до 90% прибыли от этих инвестиций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в США", что вызывает беспокойство в Сеуле 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Еще один крупный блок соглашения касается энергетики.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четырех лет Южная Корея обязалась закупить американский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СПГ) и другие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на сумму 100 млрд. долл. - примерно по 25 млрд. долл. ежегодно. По мнению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РК, это не превышает текущего уровня импорта, но в Вашингтоне данно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часть

пакета уступо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суммировать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и закупки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то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экономика США получит от Южной Кореи почти полтриллиона - 450 млрд. долл.

Отдельно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доступа американских товаров на 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Дональд Трамп заявил, что Корея полностью открывает свой рынок для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дукции - в том числе 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аграрной сферах. Одна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прямо опровергли эти заявления,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рынки риса и говядины, традиционно защищаемые Сеулом, остались закрытыми, и никаких новых уступок в этой части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ША пообещали не ввод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е меры против корейских чипов и фармпродукции, что Сеул расценивает как тактическую победу.

Наконец, обе стороны подтвердили намерение в ближайшие две недели провести личную встречу президентов Ли Чжэ Мё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на которой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по реализ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а также расширить диалог на 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повестку дня выйдут вопросы о росте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Кореи и увеличени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ебыван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Кризиса избежали, но немало заплатили

Сеул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самого жесткого варианта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 введения 25-процентных пошлин,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экспортерам. Однако достигнутая сделка далека от победы. По сути, это вынужденная уступка, сделанная в условиях давления и цейтнота, гд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перед выбором между капитуляцией и торговой войной.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получил почти все, что хотел: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закупки американских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открытие корейского рынка. Взамен - лишь косметические уступки: снижение пошлин д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ранее уже был согласован с другими партнерами, и декларации о будущ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американских заявлениях акцент делается на том, что контроль над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инвестиций и отбором проектов останется за Вашингтоном, а основная прибыль (до 90%) - достанется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ает соглашение как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но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уступило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направлений. Исключение - сохраненный доступ к внутреннему рынку риса и говядины, что имеет больше символическое, ч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Особенно чувствителен удар по автопрому: прежняя нулевая пошлина исчезла, уступив место 15-процентной. Для сравнения: у Японии и ЕС была пошлина 2,5%, теперь тоже 15% - то есть Корея потеряла 15 п.п., Япония - только 12,5.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также вызывают вопросы. Обещанные 350 млрд. долл. - это до 25% от ВВП Южной Кореи, тогда как япон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13% ВВП, а европейские - 6,9%. Фактически Сеул внес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среди союзников США, но получил не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пакет в ответ.

Не менее тревожно и то, что никакие четких механизмов возврата вложенных средств не прописано, как и критериев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управлении фондами. На фоне этого сохраняются драконовские тарифы на корейскую сталь - до 50% -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орея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стали в США. Это удар по таким гигантам, как POSCO и Hyundai Steel,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конкуренции с Китаем.

Итог - это сделка, в которой Корея сохранила лицо и экспорт, но це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уступок и нового уровня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ША.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ее компромиссом "среди проигравших", где максимумом успеха стало то, что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худшего. И даже этот результат был достигнут огромной ценой.

Слабым утешением для Сеула, которое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сняя результа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констатации факта, что все основные партнеры США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невыгодные для себя уступки под давлением Трамп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доступом к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ША, которую должна возродить за свои же деньги. Это дает надежду на долгосрочные заказы, но отнюдь не за бесплатно. Эти 150 млрд. долл. могли пойти в судостро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а уйдут в СШ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 юбилею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отремонтируют маяк Курбатова и установят 4-метров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онумент

На Шумшу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80-летия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командировки ход работ на самом отдаленном острове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оруч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ал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й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лючевые события на Шумшу пройдут в юбилей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 18 августа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инсталляцией. Работы на завершающем этапе. Мы осмотрели место, гд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ысадки десанта на Шумшу. В ней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о порядка 150 человек. Определили место, где пройдет церемония 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которые обнаружили поисковики во время экспедиции этого год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сего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обнаружила останки 7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 Только у одного солдата была подписанная ложка. Сейчас с ней работ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фамилию бойца, которая на ней нанесена. На Шумшу уже есть существующий мемориал, братская могила, где похоронены Геро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торые погибли во время штурма острова. Это будет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вновь обнаруженные бойцы будут лежать рядом со своими товарищами. Захоронение пройдет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с участием салютной и знаменной групп,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и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отдадут дань памяти павшим героям,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Артем Банду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Невский батальон» возводят на Шумшу уличную экспозицию.

— На бетонные постаменты встанут конструкции из кортена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посвященными высадке десанта, бою с японски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Также гости увидят композицию из фигур солдат, выполненных в натуральную величину. Одна из таких композиций — воплощение реальной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ой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На ней изображены советские морские пехотинцы на фоне подбитого японского танка,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Невский батальон» Дмитрий Поштаренко.

Накануне в Москве Российско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о перв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амят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Скульптор Маргарита Фомина постаралась запечатлеть решающую минуту и «последний прыжок»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иколая Вилкова и Петра Ильичева, которые в первый день высадки отряда закрыли своими телами вражеские амбразуры. 4-метровый бронзовый монумент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на Шумшу к 18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Он станет прологом к масштабному мемориалу, посвященному Победе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д войсками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в последнем бо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также осмотрел ход работ на мысе Курбатова, где ведется ремонт на одноименном маяке, 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возложении цветов к новому мемориалу.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памятника принима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восточному арктическому району и ветераны, проходившие службу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амятная плита посвящена морякам-пограничникам,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есанте. На ней обозначены пограничные корабли и катера, вступившие в последний бой войны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На вторую плиту мемориала перенесена репродукция картины художника Андрея Плотнова «Десант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грязи и кваса до краба или как экспортны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а показан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а экспортную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провела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гредиентов, пользующихся спросом за рубежом.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веду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ского экспорта под брендом «Сделано в России» —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и продвиж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товар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ынках, реализуемой Российским экспортным центром (РЭЦ, Группа ВЭБ).

—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первые, мы провели презент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брендов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делано в России». Показываем партнерам сахалинскую продукц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самым высоким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чтоб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сийского экспортного центра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экспорте. Кроме того, форум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езентации широ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гиона в сфер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и климатиче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экономик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лючев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и:

— Санаторий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 крупнейшая здравница области с 35-летней историей.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профилей санатория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ульфидно-иловой грязи озера Изменчивое, обладающей уник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 высокое содержание сероводорода, йода, магния и железа, а также гуминовых кислот и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усиливающих её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 «САКО»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сладост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линейке компании присутствует более 200 наименований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завоевавших заслуженную любов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том числе мармелад, печенье, сахарная пастила и единственны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мадные конфеты на основе натуральных ягод;

— «Корсаковский завод пива и напитков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 лиде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бъемам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родажи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В числ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 2 завода в Корсаков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нащенных современным европей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ива, кваса, газированных напитков;

— «Дивия - Фарм Сахалин» — производитель инновационных фитопрепаратов 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под брендом «Ламина Форте»;

—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Ширинский Михаил Петрович — производитель эфирных масел и гидролата из хвойных пород деревьев.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ая продукция,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осметических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целях;

— РПК «Кардинал» — последние 7 лет компания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добавок из толеневого жира под собственной торговой маркой «Иммунорст».

—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альцева Екатерина Алексеевна — яр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региона. Разв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ый бренд одежды с айденти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TEMBR;

— ЛК СахИнвест —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ая компания, иницировавшая проект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опливных пеллет для рын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 остат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переработки древесины.

—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ушков Станислав Николаевич — производитель иван-чая с особенной техникой ферментации, произрастающего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 «Баня 37» — производитель веников из курильского бамбука, произрастающего на уникальном 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Ранее на полях ПМЭФ–2025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ЭЦ Вероника Никишина 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окумент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экспор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егиона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выход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учиться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истории

С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обучение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истории начнется для учеников 5-9 класс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упило свыше 58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Островные школы на 100% обеспечены учеб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Авторами учебников истории для 5-9 классов стали известные деятели —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ректор МГИМО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и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ститута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РАН Александр Чубарьян. Новый учебник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временный, открытый формат, интегрирующий отечественную историю со всеобщей.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свещение» уже полностью поставило учебники в регион.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новаций — синхронизация изуче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истории мира, — отметил соавтор школьной линейки учебников, академик РАН Александр Чубарьян. — Так, если традиционно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в школе начиналось с пятого класса с истории древнего мира, 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 с 6-го или

7-го классов, то теперь в 5 классе параллельно с мировой историей древнего мира вводится курс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 изучени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к в Сибири, Поволжье, Причерноморье и в Крыму. Так достигается цель встраива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в мировой контекст, у школьника — складывания цельн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Обновленное учебное издание отличается более низкой стоимостью и при этом долговечностью благодаря твердому переплету. При их разработке были учтены лучшие наработки предыдущих версий, а также добавлены ссылки на достовер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ресурсы для углубленного изучения материала.

— Мы стремимся сдела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аксимально доступным для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Поэтому при обновлении учебных фондов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е только содержанию, но и практическим аспектам. Нов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ебники истории для 5-9 классов — яркий пример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Они не только в четыре раза дешевле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но и обладают повышенной долговечностью благодаря прочному переплету.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учебники прослужат дольше, снижая нагрузку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метим, обновление библиотечных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ведется с 2023 года. Уже заменены учебники для 1-3 и 5-7 классов, приобретены свыше 17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ебников по истории для 10-11 классов.

В 2024 и 2025 году школы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и 769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На закупку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за этот период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315 млн рублей. В 2026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учебники по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для 9 класса и по предмету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ая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для 5-7 классов.

Истории молодежи о героях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станут частью летописи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историк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конкурс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посвященная памяти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конкурс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направлена на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семей в контекст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ВО),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детей,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ежи чувства патриотизма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будущее страны.

На конкурс допускаются работы в раз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формах: рассказы, эссе, очерк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 др. Прием работ стартовал 1 июл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svyazushchaynitya.rf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23 лет.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екта — Движение «За молодежь» и Комитет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КСВ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и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Ф.

Проект поддержал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актер, режиссер и сценарист Никита Михалков. В жюри и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конкурса вошли известные писатели, видны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медиа, члены ОП РФ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Автор проекта —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председатель движения «За молодежь» Евгений Мартынов.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через разговор с родными переосмысливают историю своих семей и их героев в контекст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ВО, а также укрепляют связи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выразив чувств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 подвигу советского солдата и действующим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Ведь тогда и сейчас идет одна борьба — за нашу землю, за право жить!» — отметил он.

Как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КСВО Юлия Белехова, проект «Связующая нить» соединяет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 это призыв, чтобы никто из героев не был забыт, а историю никто и никогда не смог переписать. «Герои сегодня есть, особенно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ВО, но героем можно стать и здесь. Надо ответить самому себе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ты делаешь сегодня для общей победы, на что ты готов и чем ты можешь быть полезен», — подчеркнула он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Жюри конкурс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Секретар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Героя России Вячеслава Бочарова, «Связующая нить» — это один из тех ярки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молодым людям разобраться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истине и осознать, что они живут в стран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ран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им фондом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памятные дипломы, ценные призы, а также их ждет личное общение с членами жюри и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итоговом сборнике «Связующая нит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в конце 2025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60년 디아스포라의 여정... 첫 종합학술서로 나왔다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회, '고려인 공동체의 운명과 선택' 발간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1863년, 함경북도 농민들이 연해주로 건너가며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 이주가 1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내 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기록한 '고려인 공동체의 운명과 선택: 그들의 역사와 삶'(박영사)이 최근 출간됐다.



'고려인 공동체의 운명과 선택' 표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회 제공]

이 책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공동 저작물로, 연해주 이주를 시작으로 한인의 디아스포라 여정, 이산의 고통, 정체성 확립, 그리고 공동체의 재형성과 미래까지를 총체적으로 담았다. 1863년 11월 30일 러시아 지신허로 이주한 13가구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세계 700만 재외한인 공동체로 이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조망한 첫 본격적인 학술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이주의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연해주 이주의 배경과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 초기 이주민들의 삶과 정착 과정, 일제강점기 이주 확대와 강제 이주의 트라우마를 분석한다.

2부는 '고려인의 삶과 공동체'를 조명하며,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분포한 고려인 사회의 변화상과 문화적 지속성, 지역 공동체의 회복 노력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세계 한인의 관점에서 본 고려인'이라는 시선으로, 현재의 고려인을 재외동포 정책 및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동 저술진은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윤인진 고려대 교수, 김동일 대구가톨릭대 교수, 기광서 조선대 교수, 최영화 호남대 교수,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장 등 각 지역에서 고려인 연구를 이끌어온 16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다. 학술성과 현장성이 조화를 이룬 구성으로, 단순한 역사 기술서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과 문화, 미래 전략까지 아우른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이 책은 '고려인을 단지 과거의 민족적 유산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한 고려인과 한인 디아스포라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지를 모색했다.

책의 기획과 발간은 고려인·한인이주 160주년 학술 포럼을 조직했던 (사)동북아평화연대, 지구촌 동포연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월곡고려인문화관 등이 중심이 됐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은 발간사에서 "고려인을 넘어 세계 한인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 책이 소외된 재외한인의 존재를 정책적으로 조명하고, 세계 한인 평화공동체 형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푸드 홍보... "김밥부터 막걸리까지 aT에 맡기세요"

aT, 글로벌시장 진출 마케팅 총력전 전개 3일 워싱턴 DC '라미어워즈'서 한국산 식재료 홍보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연계 농식품 홍보관 운영 K-푸드 상반기 수출, 전년 比8.4% 증가한 51.6억불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K-농산물 및 K-푸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aT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3회 라미 어워즈(RAMMY Awards)'에 참가해, 현지 셰프, 외식업계 관계자,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K-푸드 식재료를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라미 어워즈'는 워싱턴DC 지역의 대표 외식 시상식으로, 매년 3000여 명의 외식업 종사자가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의 셰프', '올해의 레스토랑', '올해의 신인 셰프' 등 20여 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며, 지역 외식산업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조명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식당 '안주(Anju)'가 '올해의 셰프' 부문을 수상해 미국 내 한식의 위상을 입증했다.

aT는 K-푸드의 현지 외식 시장 내 대량납품 판로를 개척하고자, 시상식과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산 인기 식재료와 전통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현장에서는 소스류, 김치, 라면, 만두 등 레스토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한국산 식재료 샘플을 골라 담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돼지갈비찜, 떡산적, 양념치킨, 참치야채김밥, 김치주먹밥 등 K-푸드 시연·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동시에 주미대사관과 협업해 오미자소주 칵테일, 유자막걸리, 복분자 칵테일 등 한국 전통주 기반의 K-칵테일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셰프와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K-푸드의 깊은 풍미와 다양성에 주목하며, 외식 메뉴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기전 aT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는 미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하여 레스토랑 등에 대량납품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미국 외식·급식시장(HoReCa)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K-푸드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aT는 '2025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FSMM)'와 연계해 8월4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K-푸드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aT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3회 라미 어워즈'에 참가해 참가자들과 K-푸드 시식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연계해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aT는 이번 회의에 각국 농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농식품 홍보관을 통해 K-푸드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해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보관은 '수출농식품관'과 '전통식품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K-푸드는 2024년 기준 99억 8천만 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1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미(美) 한인사회 긴장...합법 체류에도 "자칫 구금, 추방될라"

美이민당국, '전과, 정치적 표현, 체류 자격 해석' 등 '일방적 판단' 적용

유학생, 교포 2세 등 '꼬투리' 잡아 영주권 박탈, 추방 위한 '구금'

현지 한인권익단체 등 "헌법상 권리에 대한 무모한 공격, 자유 억압" 비판

법원 개입으로 구금 제한 불구, 결과 불투명한 지리한 소송 거쳐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재미 한인사회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인 체류 자격의 유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당했다.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출두한 이민법정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체포, 추방 위기에 몰린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경미한 경범죄 이력을 문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추방을 위한 중구금 시설에 수용된 재미교포 2세의 사연도 있다.

이 밖에도 널리 '뉴스'가 안 되었을 뿐 이와 비슷하게 곤경에 처한 한인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매체 '엑시오스'는 "특히 (한인사회를 포함한 소수민족의) 이런 사안들 중엔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학생들로서, 시위 참여나 특정 정치적 표현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체포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

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내 시민권익단체나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로서, 부당한 체포·구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현상엔 '백인 우월주의'도 한 몫한다. 이런 인식이 배어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종들 역시 '히스패닉' 못지않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재미 한국인 사례에서도 이를 실감케 한다.

'백인 우월주의'도 작용, '김태홍 씨 사례'

텍사스 A&M 대학교 박사 과정생인 '월 킴'(김태홍)도 대표적인 사례다. 5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그의 사례는 인물 중심 매체 '피플(People)'을 통해서도 크게 보도되었

다. '피플'은 '라임병 막으려면 과학자, 형 결혼식 후 이민국에 체포'라는 제목과 함께 '관계자들은 과거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비난'이란 부제로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달 40세의 라임병 전문가이자 과학자인 김씨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무작정 체포, 구금된 상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14년 전 경미한 마약 혐의로 사회봉사를 마친 사실이 '꼬투리'가 되었다.

당국은 그의 범죄 기록이 원인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에서 열린 형 결혼식에서 돌아오던 중 이민국 직원들에게 구금되었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잡아갔다.

당국은 그러나 오래 전의 경범죄 마약 혐의를 이유로, 추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ICE에 구금된 상태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인 전미한미봉사교육협회(NAKASEC)에 따르면, 그는 라임병 예방법을 연구해온 인재다. 이 단체는 "월은 변호사 접견 없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구금되어 있다."면서 "김 씨의 변호인들은 그가 구금된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된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미 사회봉사까지 끝낸 상태다.

현재 당국은 72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자체 지침을 외면한 채 그를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특히 김씨의 변호사인 칼 크루스는 성명을 통해 "경찰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혀 재웠고, 물과 '매점 음식'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의 방에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다.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국은 김씨의 '헌법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를 무료로 변호하는 로펌 'Lee & Godshall-Bennett, LLP'의 '에릭 리'는 "CBP(세관) 감독관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해당 감독관이 '김씨의 이민 신분 때문에 헌법상 권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수 십 년 전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어머니는 '피플'에 "아이들은 미국을 고향으로만 알고 있다. 월(김씨)은 실수를 했거나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갇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김 씨 사건은 특히 '피플'을 비롯한 여러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피플'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소위 '위험 인물'과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려는 조치로 인해 실수로 체포되거나 가족이 생이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тметим, финансовую и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ю оказывае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помогла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새로운 기념일 <예술가의 날>, 러시아에서 매해 기념

러시아에서 매해 1월 17일을 <예술가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달력에 새로운 직업인의 날을 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연방 정부 측이 전했다.

총리의 지시로 러시아 문화부는 이러한 결정을 정착시킬 부서별 표준 시행령을 발표해야 한다.

예술인의 날은 1월 17일에 기념하게 되는데 이날은 소련의 첫 인민예술가이자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설립자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기력 시스템의 창시자인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1월 17일은 극장, 영화, 서커스의 연기자들과 음악인, 가수들의 기념일이 된다.

러시아 극장사업연맹의 대표인 블라디미르 마슈코브가 연중 기념일에 예술인의 날 제정에 대해 제안한 것을 정부에서 확인했다.

Новый праздник: в России начнут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ть День артиста

В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17 января будут отмечать День артис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распорядился закрепить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в календар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указано, что Минкульт России должен выпустить ведомственный нормативный акт, который закрепит это решение.

День артиста будут отмечать 17 января. Именно в этот день родился первый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СССР, один из основателей Москов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создатель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й системы акте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Константин Станиславски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17 января станет праздником для артистов театра, кино, цирка, а также музыкантов и эстрад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точнили, что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закрепить в календаре День артиста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России, актер Владимир Машков.

사기범들, 군사위원회를 사칭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화로 접근

사기범들이 군사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사기범들의 주목적은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텔레그램 공식 '러시아 사이버경찰 공지'를 통해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통화 시 피해자에게 군 등록정보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며, 마치 러시아에서 시행하는 전자통보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는 듯 언급한다.

계속해서 사기범들은 SMS로 전달된 코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이 코드를 통해 사기범은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국민들에게 군 기록 재등록을 위해서 그 어떤 확인이나 확증 코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와 유사한 통화를 무시하도록 당부했다.

МВД: мошенники начали звонить россиянам от имени военкомата

Мошенники под видом сотрудников военкоматов начали звонить россиянам. Цель аферистов —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аккаунту жертвы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фициальном Telegram-канале «Вестник Киберполиции России».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аферисты сообщают жертв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новить сведения воинского учета. Это якобы ну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реестра электронных по-

весток, который заработал в России.

Далее мошенники просят продиктовать код из смс-сообщения.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аккаунту жертвы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В МВД просят граждан игнорировать подобные звонки, объясняя это тем, что для реестра воинского учета не требуется никаких проверок или кодов подтверждения.

3명의 러시아 국민, 상금 3,300만 루블리의 복권에 당첨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추와시 공화국의 국민 3명이 3,300만 루블리에 해당되는 복권 '메츠탈론'에 당첨되었다. 또한 9명의 참가자들은 1백만 루블리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전 러시아 복권 브랜드 홍보자료를 통해 전해졌다.

1백만 루블리에 당첨된 사람들은 쿠르스크주, 첼랴빈스크주, 쿠르간 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복권사이트와 복권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55만 장 이상의 복권이 당첨되었고, 총 당첨 금액은 1억6,800만 루블리가 넘었다.

Сразу трое россиян выиграли в лотерею по 33 млн рублей

Трое россиян из Москвы,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Чувашии выиграли в лотерее «Мечталлион» по 3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Еще девятерым участникам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выиграть по одному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РИА «Новости»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бренд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лотерей.

Выигравшие по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россияне приобрели свои билеты в Курс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ях, Башкортостане и Татарстане, а также на сайте или в приложении лотереи.

Всего выигрышными стали более 550 тысяч билетов, а общая сумма тиража превысила 16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